

설 이후 고객잡기... 유통가 기획전

이마트 안마기 등 전면 배치
전년비 287.8% 매출 증가
롯데백화점 광주점 명품 할인전
광주신세계 스마트가전 제안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혼족' 증가 트렌드에 맞춰 설 연휴 이후 블루투스 스피커가 장착된 안마의자 등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대형 유통매장이 설 대목에 이어 각종 기획전을 열어 연휴 이후 고객잡기에 나섰다.

2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닷새간 지하 1층 특별매장에서 새해 첫 해외패션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는 '겐조', '비비안웨스트우드', '막스마라', '소니아라키엘', '아이그너', '제라르다렐' 등 이월 상품을 최대 90%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해외명품 행사장에서 60만원 이상 구입하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파장이 확산되기 전인 1월1~2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해외명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명품 매출은 광주점 전체 매출 증가율 보다 25% 이상 높았다.

최용현 롯데백화점 광주점 해외패션잡화팀장은 "불황에도 명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것 같다"며 "기방부터 의류, 신발까지 명품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4개 이마트는 명절 피로를 풀기 위한 안마기·안마의자를 매장 전면 배치했다.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이마트 안마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7.8% 증가했다. 안마의자 매출도 13.4% 올랐다.

이마트는 설과 추석이 포함된 1월과 9월 안마기 매출이 연간 매출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에 착안해 소형안마기 등을 대거 내놓았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소형안마기 매장 점유율은 12.8%로, 매년 점유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이마트는 1인가구를 위한 '일렉트로맨 베이직 목어깨 마사지기', '일렉트로맨 발 마사지기', '일렉트로맨 종아리 마사지기' 등을 2만~17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행사카드를 이용하면 36개월 무이자 구매도 할 수 있게 했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안마의자,

안마기 등 건강가전이 명절 기간에 판매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노년층 이외에도 젊은 소비자들과 1인가구들도 안마용품을 많이 찾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이동이 편리하고 실내장식 효과까지 있는 '라이프스타일' 안마의자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에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내장돼 음악을 들으며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신세계 8층 생활전문관에 입점한 삼성·LG전자·삼성·데팔 등 가전 브랜드는 30일까지 무풍갤러리, 피부미용 마스크 등 '스마트가전 제안전'을 진행한다.

지역 대형 유통매장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쇼핑 수요가 온라인으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28일 일주일 동안 롯데쇼핑 온라인몰을 찾은 고객은 지난해 설 연휴가 포함된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74% 증가했다.

명절 이후에는 매출이 급감하는 예년과 다르다는 것이 롯데쇼핑 측 설명이다.

온라인 판매에서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과 생필품이 주를 이뤘다. 롯데닷컴의 24~27일 마스크 판매액은 2억원을 넘겼다.

정상영 롯데닷컴 마케팅운영팀장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 뿐 아니라, 공기청정기와 건강기능식품류 매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해양조 직원들이 29일 선창 앞에서 '독도 복분자주' 프랑스 수출을 축하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보해 복분자주, 독도 라벨달고 프랑스행

'독도는 우리땅' 알리기 나서
다음 달 1일 6000명 선적

'독도 지킴이' 서경덕 교수와 협력해 만든 '독도 복분자주' 6000명이 프랑스로 간다.

29일 보해양조는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문구와 그래픽이 들어간 보해 복분자주가 다음 달 1일 선적돼 한두 달 내에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선보여진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독도 캠페인을 펼쳐왔다. 보해는 24개국으로 수출되는 보해 복분자주에 독도 인쇄물을 부착했다. 인쇄물에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독도'(Dokdo, the first place of sunrise in Korea)라는 글과 독도, 갈매기 그림이 그려졌다.

이번에 수출될 제품은 컨테이너 1개 분량인 6000병으로, 프랑스 전역에 공급된



독도 인쇄물이 붙은 '보해 복분자주'

다. 서 교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독도 캠페인을 알리자 유럽과 미국인 거주 중인 한인 위주로 독도 복분자주 판매처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박찬승 보해양조 팀장은 "보해 복분자주는 해외에서 특별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현재 세계 24개국에 수출될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술"이라며 "프랑스 현지 업체가 독도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추가 수출도 협의 중이어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교환권·영수증 가져오면 설 선물 교환·환불

일주일에서 한달까지 가능
해당 매장에 미리 전화 문의

친지 등과 주고 받은 설 선물을 어쩔 수 없이 바꾸거나 환불받아야 한다면?

마트·백화점 등 주요 대형 유통매장 관계자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설 선물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29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설 선물세트의 경우 신선·냉동 식품은 일주일, 그 외 상품은 1개월까지 교환·환불을 할 수 있다. 단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정상 상품'이어야 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되도록 '선물 상품 교환권'을 챙길 것을 권했다.

설 선물의 경우 받는 사람이 영수증을 챙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선물 교환권을 지참해 구매날로부터 7일 안에 매장을 방문하면 해당 상품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금액 이상의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신선식품은 제외하며 환불은 할 수

없다. 광주·전남지역 9개 롯데마트는 신선식품을 빼고 구입 영수증이 있으면 2주 안에 교환을 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명절 선물 환불을 원할 경우 해당 상품 금액만큼 신세계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과일, 생선 등 농축수산물물은 제외하고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정상 상품이 교환·환불 대상이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한 달 안에 매장을 찾으면 상품 금액과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상품권으로 환불 가능하다.

광주·전남 7개 이마트에서는 정상 품질에 한해 신선·냉동식품은 구매날로부터 7일 안에, 다른 상품은 1개월 안에 교환·환불할 수 있다. 단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신용카드 구매내역 등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되도록 상품을 구매할 때 매장을 방문해야 빠르게 교환·환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 공금증, 광주신세계서 해결

부동산 전문강좌 확대
3월8일까지 수강신청

광주지역에 고분양가 아파트가 잇따라 생겨나면서 광주신세계가 '부동산 전문 강좌'를 열어 고객들의 부동산 공금증을 해결한다.

29일 광주신세계는 '부동산 전문 강좌' 등으로 구성된 봄학기 아카데미 수강신청을 오는 3월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봄 학기에는 부동산 관련 강좌를 지난해에 비해 20% 넘게 늘렸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 주 내용이었던 기존 수업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 건물매입 사례분석, 절세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좌를 마련했다.

부동산 관련 첫 강좌는 2월7일부터 열

린다. 이날 초빙된 부동산 전문가는 관련 세제제도와 주택 취득, 부동산 거래, 상속·증여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같은 달 20일에는 부동산 관련 민사분쟁 대응법을 알아보고 부동산 수익, 성공사례 등을 분석한다.

정기 봄 학기는 3월2일부터 5월28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9층 아카데미 접수처나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유효정 광주신세계 아카데미 담당자는 "최근 부동산 정책이 급변하며 수요자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며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전문강좌를 다수 마련한 만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문화된 못지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마트, 해외 브랜드 '클라우드 펀딩'

스페인 'CETTI' 운동화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20~30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모금)'을 도입한다.

이마트는 오는 31일부터 24일 동안 클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인 '와디즈'와 협력해 스페인 브랜드 'CETTI' 빈티지 운동화 2종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클라우드 펀딩은 기업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CETTI'는 국내에는 정식으로 선보이지 않은 25년 전통 스페인 신발 전문 브랜드이다. 이마트는 투자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미리 주문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11만원대 상품을 9만원대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펀딩이 성사되기 위한 목

표 금액은 2000만원으로, 펀딩 목표 달성 시 주문 수량 만큼을 생산해 5월 중 고객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이마트 측은 "중간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브랜드를 발굴하고 직접 거래하면서 유통 단계를 간소화했다"며 "매장을 통한 판매방식보다 최소 25% 이상 가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펀딩은 오프라인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던 물류비 및 각종 고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마트는 클라우드 펀딩을 신규 브랜드 및 상품 개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전 이마트 해외소싱 담당은 "클라우드 펀딩 판매방식을 도입해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 새로운 고객층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